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은 아이들의 날이다. 경기침체로 어른들은 힘들어하지만 맛있는 음식과 세뱃돈을 기대하는 아이들은 즐겁기만 하다. 광주시 동구 ‘동명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세뱃을 올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2(금)	13(토)	14(일)	15(월)
흐리고 비/눈 1/4℃	맑음 -2/8℃	흐림 -1/7℃	흐림 0/8℃

## 빛속 귀성 시작

### 5천만명 민족 대이동

설(14일)을 맞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국토해양부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전국적으로 약 5천245만명(1일 평균 1천49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설은 연휴기간이 사흘로 짧은 데다 연휴 하루 전날인 12일에는 눈과 비가 예보돼 귀성길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

설을 사흘 앞둔 11일 광주 고속버스터미널과 광주역 등 주요 버스터미널과 역, 여객터미널에는 벌써부터 선물꾸러미를 손에 든 가족 단위 귀성객이 눈에 띄었다. 또 광주·전남 일부 국도 주변과 국립5·18민주묘지, 광주시립묘지 인근 도로에는 교통혼잡을 피해 일찍 성묘를 마치려는 성묘객들이 몰고 온 차량으로 정체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11일 한국도로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12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날 하루에 만 무려 28만8천대의 차량이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광주·전남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부터 5일간 광주·동광주·동광산·전주·순천·목포 등 호남지역 주요 영업소 귀성·귀경길 예상 교통량은 85만대(귀성 42만2천대, 귀경 42만8천대)로 예상된다. 호남권 전지역 예상 교통량은 지난해 설(215만537대)보다 20.9% 증가한 260만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울→광주 귀성은 최대 7시간이, 광주→서울 귀경은 6시간50분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는 승용차보다 1~2시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도로공사는 연휴가 짧아 귀성차량과 귀경차량이 일시에 집중돼 극심한 혼잡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귀성차량은 12일부터 설 하루 전날인 13일 오전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귀경차량은 설날인 14일 오후와 15일에 몰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2일 오후~13일 오전 혼잡 예상 구간은 ▲호남선 삼례~김제(19km)·산월~동광주(9km) 등이며, 14일~15일 오후에는 ▲호남선 김제~익산(26km)·용봉~광주(12km)와 서해안선 서김제~동군산(12km) 구간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봤다. /이종형기자 galee@

## 광주시장 후보 강운태·박광태 2강 구도 전남지사 후보 박준영 1위...주승용 추격

光州日報·KBC 공동 6·2 지방선거 유권자 8,100명 여론조사 ▶ 4~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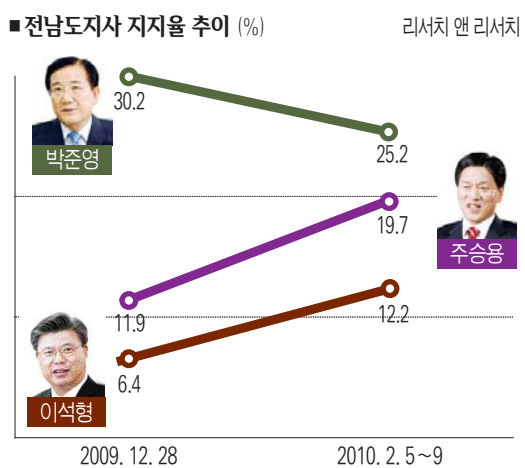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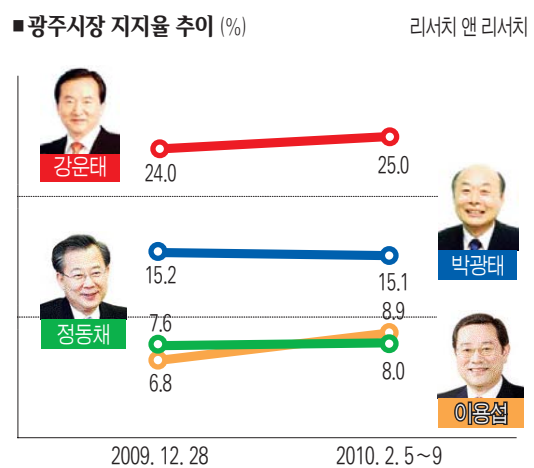
6월 2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가상대결에서 민주당 강운태 국회의원과 박준영 현 전남지사가 선두를 달렸다.

또 올해 처음 직선으로 치러지는 광주·전남 교육감 후보로는 안순일 현 시교육감과 김장환 전 도 교육감이 2위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등 ‘혼전’을 펼치고 있다.

광주 5개 구청장과 전남 22개 시군의 시장·군수 지지도 조사에서는 대부분 현직 단체장들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광주일보와 광주방송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9일까지 5일 동안 광주·전남 유권자 총 8천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광주시장 선거 판세는 민주당 강운태 국회의원과 박광태 광주시장이 2강, 그리고 이용섭 국회의원과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등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운태 의원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본보 신년 여론조사에 비해 지지율이 1%포인트 오른 25.0%로 선두를 달렸고, 박광태 현 광주시장이 15.1%로 그 뒤를 쫓으며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조사에 비해 0.1%포인트 감소했다. 이어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이 8.9%,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8.0%로 혼전을 벌이며 중간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뒤를 전갑길 광산구청장이 5.7%로 쫓고 있다. 양형일 전 의원은 3.5%,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2.3%,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당 위원장 2.1% 순이었다. 한나라당으로 광주시장 출마를 고민중인 정용화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은 1.5%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전남지사 후보 지지도에서는 박준영 현 전남지사가 25.2%로, 민주당 주승용 국회의원이 19.7%로 5.5%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박 지사는 30.2%로 2위 주승용 의원(11.9%)을 멀찌감치 제치고 단독 선두를 달렸지만, 한 달여 만에 지지율이 5%포인트 줄었다. 이어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12.2%로 뒤쫓고 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조사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이번 전남지사 지지도 조사에서는 부동층이 40.7%에 달한데다 박 지사가 이달 말 또는 3월 초 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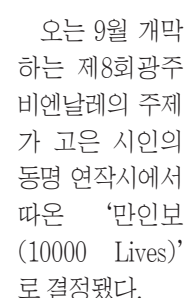
의 뜻을 밝힐 예정이어서 향후 부동층과 후보 간 행보에 따라 급격한 관세 변화도 예상된다.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는 안순일 현 시교육감이 14.9%,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이 13.9%로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어 탁인석 전 광주시교육위원과 윤영일 광주예술고등학교 교장이 각각 4.7%로 같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김영수 전 삼도초등학교 교장(4.6%), 장휘국 광주시교육위원(4.0%), 이종현 무등중학교 교장(3.0%)도 오차범위 내에서 ‘혼전’을

치르고 있다.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김장환 전도교육감이 9.1%의 지지율로 가장 앞섰고, 김경택 동아인재대학 총장 6.0%, 신태학 전 여수교육장 5.2%, 윤기선 전 전남교육연구원장 5.0%, 서기남 전남도교육위원 4.8%, 정찬종 전 무안교육장 4.1% 모두가 오차범위(±2.53%) 내에서 접전 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제8회 광주비엔날레 주제 ‘만인보’



오는 9월 개막하는 제8회 광주비엔날레의 주제 ‘만인보’가 고은 시인의 동명 연작에서 따온 ‘만인보(10000 Lives)’로 결정됐다. 마시말리아노 지오니 총감독(사진)은 11일 오전 광주비엔날레 재단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예술의 다양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실제 인물의 삶을 주제로 쓰여진 만인보에서 올해 비엔날레의 주제를 차용했다”고 밝혔다.

지오니 감독은 “특히 올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 만큼 자유와 평화를 노래한 시집에서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며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집 ‘만인보(萬人譜)’는 고은 시인이 1980년 5월 쿠데타에 저항해 수감된 육군교도소 독방에서 그가 만났던 사람들을 주제로 쓰기 시작한 연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3·14·15일 신문 쉽니다

설 특집·극장가·TV  
11~22면  
쭉 뽑아보세요

세종시, 모두의 희망을 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 광주 전남으로 올 것이 세종시로 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 혁신도시·기업도시도 세종시 못지않게 꼭 성공시켜드리겠습니다.
- 나주 혁신도시에 관한 어떤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광안분위기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유치도 응원합니다.